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방의학의 향후 역할

김 일 순

연세의대 명예교수

지난 세기에 예방의학이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한 업적은 대단히 크다. 위생개념의 발전과 더불어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구명함으로써 대부분의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천연두를 근절할 수 있었으며 홍역과 소아마비의 근절을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염병에 의한 사망 위험의 극적인 감소는 인류의 평균수명을 역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 위험요인들을 찾아냄으로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원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고 만성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건강증진 개념을 정립했으며 앞으로 질병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구명한 업적은 지난 세기 후반에 들어 예방의학의 가장 빛나는 공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그간 이루어진 흡연과 건강에 대한 모든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흡연의 건강상의 위해를 공적으로 발표한 이후 의학 역사상 단일 문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흡연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보건문제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3-4백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고 그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 담배회사는 물론 법원에서 담배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방의학의 고유한 학문인 역학적인 방법 자체를 폄하(貶下)하고 있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지 50여 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 사회전반에서 아직 담배의 건강상의 위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대단히 많다. 얼마 전 소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건강증진법의 개정예에 업자에게 지나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나, 세계보건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 흡연규제조약(FCTC)의 제정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재경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인 남성흡연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흡연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청소년 흡연에서 담배 시작연령이 점차 낮아진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비록 세계적으로 이미 50여 년 전에 담배의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해 첫 연구가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 수십만 건의 연구결과가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흡연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예방의학계에서 또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흡연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1. 예방의학 회 회원은 자기가 하는 학문을 존경하고 연구결과를 현 생활에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흡연의 건강에 대한 위해는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예방의학의 고유한 방법론인 역학에 의하여 약 5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 예방의학은 물론 각 의학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최근에 이

투어진 연구일수록 흡연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의학 회 회원 가운데는 연구결과를 자기의 생활방식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이는 자기가 하는 학문의 존엄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일반국민들 중에는 역학이라는 학문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적어 담배의 건강상 위해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결과를 공공연하게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의학 회 회원자신이 역학적인 연구결과에 반하는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학문의 신뢰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2. 흡연과 건강은 예방의학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인 연구과제로 인식해야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단일 과제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과제가 흡연과 건강과 관련된 연구다. 흡연과 건강과 관련된 연구만을 다루는 학술지가 여러 편이 있으며 medicus index에서는 흡연과 건강에 대한 연구만을 따로 뽑아 매 3개월마다 발간하고 있으며, 흡연과 건강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모아 보여주는 웹사이트도 대단히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흡연과 건강에 대한 예방 의학적인 연구는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금연운동에서 인용하는 연구결과와 대부분은 외국의 연구자료들이다. 우리 예방의학 회에서 흡연과 건강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도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분들은 이미 흡연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물론 흡연의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연구도 아직 해야 할 분야가 많이 남아있다. 최근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지선하 박사가 흡연하면 전체 체중은 줄어들지만 복부 비만은 더 늘어난다는 연구도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약 30%가 흡연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들이 왜 흡연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청소년의 95%가 담배가 건강에 대단히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피우고 있지만 이 간격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다. 흡연자의 70-80%가 금연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금연을 성공하는 사람의 수는 불과 5% 전후에 불과하다. 이제 흡연자들의 금연동기와 금연방법에 대한 공중보건학적인 연구도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 흡연으로 인한 실내, 사무실 내, 작업장 또는 가정 내의 공기 오염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 세계적으로 담배회사가 지원하는 연구를 하거나 연구비의 지원을 받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담배회사의 폭로된 비밀 문서에 의하면 담배회사는 그간 특별한 목적으로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연구비 등을 통해 많은 학자들을 매수한 것으로 들어 났으며 그 매수된 학자들의 이름도 이미 공개된바 있다. 그 명단에는 우리나라 학자의 이름들도 포함 된 바 있었다. 담배회사는 순수한 학문을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지금도 수시로 학자들을 접촉 자기들의 전략과 맞는 연구를 해달라거나 자문교수가 되어 달라고 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고 풍족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우리 예방의학회 회원은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3. 예방의학 회 회원은 누구나 흡연과 건강에 대해 보건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예방의학 회 회원은 흡연의 건강상 심각성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언제나 요구가 있을 때 보건교육을 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각 학교마다 직장마다 흡연과 건강 또는 금연에 대한 교육요청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의외에도 그러한 요청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분의 회원 수가 적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적어도 다른 분야보다는 예방의학 회 회원 중에 보건교육 준비가 된 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과대학이나 보건대학 또는 보건대학원의 예방의학 정규 교과과정에 흡연과 건강 그리고 금연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서 흡연과 건강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

최근 담배회사들이 나서서 청소년 금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것은 어디까지나 실추된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담배회사가 하는 청소년금연운동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흡연욕구를 더 일으킨다고 했다.

우리나라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청소년 금연교육 내용도 담배는 어른이 된 후에 피워라 하는 것이 주 내용이거나 “청소년들이여 지금은 담배가 아니라 꿈을 키울 때이다”라는 식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모호한 청소년 금연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흡연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금연교육에서 담배회사의 청소년 금연교육의 허실을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

4. 예방의학 회는 대외적으로 흡연의 건강상의 위해 특히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예방의학 회에서는 흡연의 폐암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이 법정에서 뜨겁게 일어 날 때, 역학이라는 학문자체의 신뢰성이 폄하될 때조차 아무 의견제시 한번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학문의 결과에 대해 대 사회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흡연의 피해에 대해 때맞추어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